10139510

在日 韓國人 文學*

김 정 희**

日本文壇에서는 日本人作家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日本에 居住하고 있는 韓國人作家도 參與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日本文壇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在日同胞에 의한 文學活動의 結實을 「在日韓國人文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在日韓國人」이라고 指稱하는 대상은 民團系·朝總連系를 區別하지 않는 同胞임을 발표에 앞서 밝혀두겠습니다.

日本文壇에서 活躍하고 있으면서 굳이 「在日韓國人文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作品에는 韓日關係와 歷史的背景이 어떤 형태로든 投影되고 있으며, 特殊한 장르를 形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在日韓國人作家라 해도 歷史의 흐름에 따라 그들의 活動樣式이나 表現등에 差異가 있으며, 같은 作家中에서도 時代的·政治的變化의 영향으로 思想的變化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日本에는 百万名의 同胞가 있는데 그중 53万名이 韓國 또는 北朝鮮國籍의 所持者이고, 나머지 20數万名 정도가 歸化한 사람들입니다. 그 以外는 居住資格이 아닌 在留資格으로 日本에 滯在中인 한국인입니다. 歸化同胞의 數는 每年 增加하고 있으며, 民族國籍을 가진 同胞數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어떻든, 日本文壇에 알려진 作家나 現在 活躍中인 同胞는 소수입니다. 그러나 數的으로는 열세이지만 그들의 작품은 日本人作家·조국의 작가가 쓸 수 없는 사정이나 심정을 素材로 하고 있고, 韓·日文壇에서도 注目할 만한 特異性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在日同胞가 된 動機나 理由의 多樣性에 起因합니다. 즉, 日帝治下에서 强制連行된 사람 및 그 後係라든지, 日帝時代에 돈을 벌러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 혹은 富裕層 子弟로서 유학을 간 경우 등입니다. 그 외에 1965年 韓日國交正常化以後, 자유의사에 의해 뚜렷

---

* 본 논문은 1999년 10월 28일 숭실대 인문과학연구원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것임.

** 본교 일본학과 강사

한 목적의식을 갖고 일본에 在留中인 사람들 (例를 들어 국제결혼, 유학, 商社파견원, 新聞社의 특파원, 스포츠맨 등)입니다.

그리고 植民地時代부터 現在에 이르는 約一世紀동안은 韓日間의 歷史的인 關聯以外에 世界思想의 潮流變化도 作用하고 있어, 어떤 때는 戰時下에서의 左右의 激突, 때로는 共産主義思想의 退潮와 民族意識의 低下등이 얽히면서 在日同胞文學을 形成해 왔으므로, 한마디로 「在日韓國人文學」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Ⅰ.

植民地時代의 在日작가로서 張赫宙, 尹東柱, 金史良, 金素雲 등을 들 수 있습니다.

尹東柱는 끝까지 抵抗했던 文學者였습니다. 金史良, 金素雲은 評價가 엇갈립니다만, 日帝의 회유에 의해 조금 親日行動을 했습니다.

抵抗詩人 尹東柱의 有名한 「序詩」를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詩는 그가 24歲때에 지은 것으로 一生동안 부끄러움이 없는 순결한 삶을 지향하려는 道德的 決意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쉽게 씌어진 詩」의 말미를 보겠습니다.

「六疊房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후의 악수」

라고 詩에서 볼 수 있듯이, 植民地 治下의 젊은 詩人으로서 세속적인 自我와 未來指向的인 나와의 융합을 적절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를 분명히 提示함으로써, 日帝治下의 그 많은 愛國志士들과 光復을 열망하던 모든 민족의 염원이 詩的으로 自我內部에 깃들여져 있음을 理解할 수 있습니다. 銃을 들고 日帝에 항거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곧은 지조가 일제의 어떤 억압에도 타협하지 않았으므로 죽음을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尹東柱는 1943年 獨立運動혐의로 日本경찰에 체포되어 1945年 福岡형무소(九州所在)에서 옥사했습니다.

金史良은 張赫宙와 함께 在日韓國人文學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초기 작품의 공통점은 반도내의 조선인 및 在日朝鮮人들의 괴로움이나 비참한 生活相을 대변하려고 하는 점입니다.

金史良은 1939年에 『光の中に』(광명 속에서) 로써 芥川賞候補에 올랐으며, 張赫宙는 그보다 조금 일찍 1932年에 『餓鬼道』로써 데뷔했었습니다. 그 후 張赫宙는 임진왜란 때 侵略軍의 先鋒將이었던 『加藤淸正』(1939) 를 쓰는 등 親日的인 작품을 썼습니다. 例를 들어 『開墾』 『幸福の民』 『岩本志願兵』 등에서 日本의 滿洲侵略, 朝鮮人의 志願兵制度, 徵兵制度의 宣傳, 鼓吹등, 日本人化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日本에 歸化하여 野口赫宙 이름으로 文學活動을 했지만, 눈에 띄는 작품은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金史良도 역시 『海の歌』(1943) 와 같은 일본의 國策宣傳作品을 創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1945年 5月 8日以後 總力聯盟 병사후원부 파견으로 한 달 반정도 盧天命과 같이 中國에 있는 學徒兵慰問을 떠났다가 日本敗戰 直前에 共産黨支配下의 延安地區로 脫出하고, 그 후, 抗日思想團體에 들어갔으며, 解放後는 北朝鮮의 文學藝術總聯盟의 一員으로 文學活動을 했습니다.

金史良은 625 動亂이 勃發하자 人民軍의 從軍作家로 참전하여 江原道 原州附近에서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불과 36세였습니다.

小說家 金史良은 日本「文藝首都」에 발표된 『光の中に』 가 芥川賞候補作으로 選定됨으로써 일본문단에서 유명해졌습니다. 『光の中に』는 일본작가 寒川光太郎의 『密獵者』와 최후까지 수상후보로 남았습니다.

1972년 『砧を打つ女』로 芥川賞을 受賞한 李恢成은「文藝春秋」(三月號)의 受賞所感에서 「나는 金史良대신으로 賞을 받은 것 같다.」고 하면서, 『光の中に』와 『密獵者』를 읽고 두 작품을 비교한 바

「時代가 金史良편이 아니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만약 軍國主義時代가 아니었다면 文學作品의 純度만으로 金史良은 賞을 받았으리라」

고 에세이 『時代와 人間의 運命』에서 말했습니다. 芥川賞은 新人作家에 授與되는 權威있는 文學賞입니다. 『光の中に』는 당시 東京本所方面의 빈민굴을 배경으로 朝鮮人과 日本人과의 混血兒인 「山田春雄」와 朝鮮에서 온 유학생 「南先生」과의 마음의 교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春雄의 父親인「半兵衛」의 根據없는 민족적 우월감과 朝鮮人妻의 열등감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在日朝鮮人의 열악한 사회적 환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詩人 佐藤春夫는 이 短篇을 읽고, 「民族의 悲痛을 마음껏 엮은 作品」이라고 評하였으며, 小說家 久米正雄는「國家的인 重大性을 가진 作品이며 文章 또한 東京文壇의 一般수준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金素雲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金素雲은 日帝의 强制에 항거하지 않아서 親日文學者의 烙印이 찍혔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로 日本海軍元帥 山本五十六의 國葬때 (1943.6.5) 獻詩를 쓴 것이 원인이 된 듯 합니다. 이 詩의 全文은 每日新聞에 발표되었습니다. 日帝末期인 1943年에 엮은 『朝鮮詩集』에서 金素雲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 日帝時代의 呻吟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政治的 抑壓과 懷柔가 있는 곳에서는 어느 時代, 어느 民族이라도 文學者가 먼저 공격대상이 됩니다. 文學者가 자기 정신을 維持하고 良心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金素雲은 1952年 東京에서의 新聞인터뷰가 舌禍事件을 야기해, 以後 13年間 조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65年 여름 서울에 온 그는 回想錄 『逆旅記』를 썼고, 自傳에세이 『하늘 끝에 살아도』(1968刊) 는 『逆旅記』를 약간 수정하여 完成시킨 것입니다. 『하늘 끝에 살아도』는 日本에서 出刊된 『日本論の名著』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의 『朝鮮民謠選』『朝鮮童話選』『朝鮮詩集』등은 뛰어난 번역으로 일본문단에서 인정받았습니다. 金素雲의 빛나는 번역업적의 원동력은 조국이 타국에 압박 당하고 민중의 생활이 비참할수록 鄕土文化와 傳統에 대한 자랑과 애착은 한층 더 해지고, 그것을 『하늘 끝에 살아도』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뿌리도 없는 부평초 같은 이런 생활 속에서 나의 鄕土, 나의 祖國의 精神이 깃들여져 있는 口傳民謠에 대한 愛情만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韓國의 評論家 林鍾國은 『親日文學論-金素雲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結論的으로 日帝 말엽의 조선 작품의 일역 또는 일본작품의 조선어 역은 바로 內鮮의 문화교류 및 국어보급 문제에 직결되는 것이었고, 따라서 이것은 친일작품은 아니지만 그 방조(幇助)적 역할만은 부인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해방 후 金素雲은 日文著書『恩讐三十年』에서 兩國에 대한 愛憎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金素雲은 생애의 折半씩을 일본과 한국에서 지냈으며 양쪽에 문학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事實, 日帝時代에 民族的 良心과 階級的 信念을 가진 文學者는 붓을 꺾어버렸거나 아니면 中國·시베리아로 亡命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生活에 肉體를 채찍질하며 小說을 쓸 수밖에 없었던 苛酷한 시대를 지나면서 解放後의 在日韓國人文學은 탄생했다고 봅니다.

이런 經緯도 있어서 解放後의 在日韓國人文學은 左翼의 문학자가 주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第二次世界大戰 直後부터 시작된 東西冷戰構造는 民族의 分斷을 가져왔고, 그 결과 在日同胞도 南北으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右派냐 左派냐 그 체제에 어울리는 創作과 운동을 하게 되어 심한 階級鬪爭이 작품을 통해 전개되었습니다. 세계는 美·蘇의 이데올로기 戰爭에 휘말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훌륭한 작품이 쓰여졌습니다.

제가 조사한 작품을 든다면, 詩로선 許南麒의 『火繩銃の歌』, 小說分野에서는 金達壽의 『朴達の裁判』이나 李殷直의 『濁流』, 張斗植의 『ある朝鮮人の記錄』, 金石範의 『鴉の死』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日本戰後文學의 一角을 구축한 金達壽는 在日朝鮮人文學者의 대표였습니다. 金達壽의 『玄海灘』(1953) 및 『朴達の裁判』은 「新日本文學」(1958.11)에 발표되었고, 『朴達の裁判』은 芥川賞候補가 되었습니다. 「新日本文學」은 戰後 中野重治·宮本百合子등 舊プロレタリア文學界作家들에 의해 結成된 新日本文學會가 발행하는 잡지입니다.

金達壽는 戰後 在日朝鮮人에 의한 문학잡지 「民主朝鮮」의 편집자로 활약했고 이 잡지에 장편소설 『後裔の街』(1949)를 발표했습니다. 『後裔の街』·『玄海灘』등에서 그가 나

타낸 것은 주로 번민하는 지식인의 모습이었지만, 『朴達の裁判』에서는 강건한 정신을 가진 民衆像을 그렸습니다.

『朴達の裁判』에서 主人公 朴達은 1945年 8月 당시 20歲였습니다. 人民委員會는 大地主의 토지를 小作人에게 分配한다고 했습니다. 일본관리들과 사이좋게 지내던 劉家의 主人은 美軍이 들어오자 美軍과 의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주인도 빨치산이 나타나자 가족만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빈집을 지키고 있었던 朴達은 빨치산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당했으나, 그에게는 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치장에서 비로소 사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치장에서 만난 빨치산에 의해 조국이 분단되었음을 알게 되고, 일단 석방되어서 옥중교육대로 反美運動을 하다가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감옥에서 朴達은 國家·民族·社會主義·共産主義 및 그와 반대인 資本主義·帝國主義·戰爭·世界史, 金日成·李承晩등에 대한 지식을 얻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한글도 배웠고, 이것으로 朴達은 鬪爭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基地勞動者를 煽動한 죄로 또다시 체포됩니다. 주인공 朴達은 犯罪事實을 숨기려고도 否認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重要한 것은 그의 여러 행동에는 背後關係가 없다는 点입니다.

著者는 무식한 朴達로 대표되는 民衆이 무엇을 바라고 지식인의 노리개로 전락되었는가를 暗示하고 있습니다. 『朴達の裁判』에서도 strike를 일으키는 사람은 前衛黨員이 아니라, 無識한 下層民 朴達입니다. 朴達은 無識함을 무기로 삼는 革命家이지, 所謂「민중」은 아닙니다. 이 小說은 625動亂에 있어서 北側을 支持하는 立場에서 쓴 것인데, 朴達과 같은 주인공의 창조는 의외로 북측의 조직비판을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작품내면에는 회의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결국, 朴達은 정치적으로 轉向을 했습니다. 『朴達の裁判』은 日本戰後文學에 적지 않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金達壽는 『日本文學社』 (明治書院) 의 「民主主義文學」란에 宮本百合子·中野重治·野間宏등과 함께 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Ⅱ.

以上과 같이 戰後 在日韓國人文學은 그 初期에 이미 多樣한 展開를 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경에는 李恢成·金鶴泳·高史明등이 同時에 旺盛한 作家活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日本戰後文學의 세계에 在日韓國人文學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장르가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선 代表로 李恢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恢成은 1935年에 사할린에서 태어나, 早稻田大學 露文科를 나와, 1969年 6月『またふたたびの道』(다시 두 번째 길) 로 第12回 「群像新人賞」을 受賞함으로써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그 후 발표된 四作,『證人のいない光景』(증인이 없는 광경)·『われら靑春の途上にて』(우리 청춘의 길목에서)·『伽耶子のために』(伽耶子를 위해)·『靑丘の宿』(靑丘의 하숙집) 등은 모두 芥川賞候補까지 올라갔지만 落選했습니다. 그래서 1972年에 『砧を打つ女』(다듬이질하는 여인) 로 外國人으로서 처음으로 第66回 芥川賞을 受賞했을 때의 감격은 한층 더 컸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강력하게 추천한 사람은 私小說的 傾向을 지닌 安岡章太郎였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의 외갓집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33歲로 사망한 어머니의 모습을 할머니의 신세타령을 통해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華太(사할린) 까지 흘러간 부부의 이야기이지만, 따지고 보면 한 여인의 삶을 그린 소설입니다. 卽 李恢成 自身의 어머니가 素材인 것입니다. 작품 속의 아버지는 보수성과 난폭함을 동시에 지닌 인물로서 매우 공포의 대상이었던 반면, 어머니는 늘 被害者였고 그런 어머니를 少年은 동정했었습니다. 그러나 『砧を打つ女』를 발표하고 훨씬 뒤에 작가는 兩親의 부부싸움의 원인이 어머니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좀더 그러한 측면에서 少年이 어머니의 人生을 疑心해보는 장면을 삽입했었더라면 보다 깊이 있는 작품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
> (李恢成『時代と知識人』同時代社)

李恢成의 小說은 私小說的이라고 하는데, 실제 어머니 이름인 張述伊가 이 소설 속에도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설 속의 어머니가 가출할 때 일본 기모노를 찢어버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러한 묘사는 창작이고, 실제로 어머니는 36歲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들어 완전한 私小說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다분히 私小說的 경향을 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靑春三部作 (『またふたたびの道』·『伽耶子のために』·『靑丘の宿』) 도 作家의 학생시절의 「마음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이 중,『伽耶子のために』는 1950年후반부터 日本의 60年 安保鬪爭이라고 하는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在日朝鮮人을 둘러싼 여러 가지 모순, 갈등, 즉 日本人과 朝鮮人의 戀愛·

結婚, 그리고 아버지 世代와 아들世代의 「朝鮮人」에 대한 思考方式의 差異, 半쪽바리 (半日本人) 意識과 母國語를 모르는 문제, 留學生問題, 歸化와 歸國問題등 그 와중을 살아가는 젊은 任相俊과 愛人 伽耶子를 中心으로 展開됩니다. 이것은 作者 李恢成의 自傳에 가깝다고 합니다. 作者도 主人公과 같은 시대를, 같은 在日朝鮮人 학생으로써, 같은 상황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伽耶子のために』는 在日교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에 초점을 맞춘 社會問題小說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在日교포문제는 戰後日本文學史上 처음으로 李恢成에 의해 메스가 加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李恢成은 1972年 北朝鮮國籍으로 韓國을 訪問하여 學生들 앞에서 강연하는 등 活動을 했으나 일본에 돌아간 후 「北であれ 南であれ わが祖國」(北이든 南이든 나의 조국, 「文藝春秋」 1972. 9)이라고 하는 南北 어느 체제에도 속하지 않는 統一祖國觀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992年에 『流域へ』(유역으로)의 번역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訪韓하려고 했지만 visa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에 visa가 나와, 韓國을 訪問한 다음해인 1996年, 『死者と生者の市』(죽은 자와 산 자의 도시)를 發表했습니다. 朝鮮國籍을 가진 主人公 文錫에게 招請者 車明岳敎授는 한국은 이미 敎育水準이 높고 民主主義가 뿌리를 내린 나라이기에 시대에 뒤떨어진 「英雄主義的 스타일」은 버려야 한다고 권유했고, 文錫 自身도

> 「社會主義를 지향했던 나의 작품이 社會主義體制의 崩壞라고 하는 歷史의 흐름을 깨닫지 못한 致命的인 缺陷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 부끄러웠습니다.」

여기에서 文錫은 李恢成이고, 車敎授는 池明觀敎授를 모델로 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文錫이 한강변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나지막한 산들이 보이고 빌딩 숲이 강한 인상을 주었다. 뉴욕 빌딩 가를 조금 축소한 것처럼 보였다. 新宿의 超高層빌딩만큼 눈에 띄지 않지만 힘차게 골고루 뻗어있어 보였다 그것은 23년 후에 처음으로 본 광경이었다」

이 글에서 우리는 李恢成의 「大韓民國」에 대한 감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首都에서 漢江을 바라보게 된데 대하여 政治的·時代的 變化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文錫의 感懷는 바로 李恢成의 느낌인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金達壽도 하고 있습니다. 1981年, 37年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기록을 적은 『故國まで』(고국까지)에서 비슷한 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후 李恢成은 1998年 「新潮」에 國籍에 대한 심정을 토로하는 수필을 썼고, 드디어 1998年 8월에 大韓民國國籍을 취득하였습니다.

Ⅲ.

이제부터 젊은 第三세대의 作家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것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있으며, 애써서 정치문제를 외면하려는 자세입니다.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쓰는 작품세계는 「너와 나」「家庭」「父子間의 갈등」「職場」「歸化」등 소외된 心理나 人間的인 번민 등의 個人的인 精神世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일본의 젊은 작가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런 潮流는 在日同胞生活의 變化에서 오는 構造的 모순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결코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1992年에 37歲로 夭折한 李良枝의 경우도 그렇고, 新進作家로 注目받고 있는 柳美理도 예외가 아닙니다. 歸化한 同胞作家도 결코 民族的 關心을 저버리거나 자신의 내면세계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李良枝는 在日朝鮮人으로 태어나 심한 差別과 偏見속에서 靑春시절을 보냈습니다. 태어난 나라 日本과 母國인 韓國과의 사이를 언어로서 identity를 찾으려고 오로지 살아왔습니다. 李良枝는 1989年, 『由熙』로써 第百回 芥川賞을 받았습니다. (34歲) 處女作『ナビ・タリョン』(나비 타령, 1982) 은 父母의 離婚, 두 오빠의 죽음이란 不幸속에서 서울 하숙집에서 쓰여진 作品입니다. 그 속에서 「"살풀이"에 使用되는 길고 흰 수건의 이미지가 당시의 나에게 있어서는 "生"의 상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中上健次는 李良枝에 대하여 「在日韓國人, 朝鮮人의 文學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그녀는 확실히 새로운 作家」(「文藝詩評」 1988) 라고 評했습니다. 1992年에 작고할 때까지 그의 作品活動은 불과 10년 정도였으나, 그녀가 남긴 작품의 주제는 주로 兩親의 긴 不和와 離婚訴訟, 家出(京都로), 在日韓國人이라는 두려움, 年上의 男性과의 戀愛와 破局, 두 오빠의 잇따른 急死, 가야금과의 만남, 한국유학, 歌舞音曲등이었습니다.

『由熙』에 있어서도 이 特徵은 분명합니다. 主人公 由熙는 자기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根源的인 「歸屬問題」를 풀기 위하여 韓國에 留學했는데, 그 結果는 故鄕을 되찾기는커녕,

母國語도 제대로 못하는 日本國籍의 在日韓國人임을 再認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한 登場人物에 自身을 投影시켰던 것이 『由熙』에서는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언어, 複數의 人間」에게 作家의 고뇌를 分散投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李良枝는 韓日양쪽에 걸쳐진 자신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러한 심경을 隨筆「富士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韓國을 사랑하고 있다 日本을 사랑하고 있다 두 개의 나라를 나는 사랑하고 있다」

이 말은 그녀가 故鄕을 喪失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두 개의 故鄕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從來 在日韓國人文學者들은 自身의 正體性을 韓國이나 北朝鮮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李良枝는 「在日」이 지닌 兩面性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小說의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는 점에서 새로운 在日作家로 지목 받게 되는 것입니다.

李良枝와 함께 「민족」에 구속되지 않는 作家로서 柳美理가 있습니다. 柳美理는 岸田戲曲賞 ·泉鏡花賞·野間文藝新人賞 그리고 芥川賞을 受賞했습니다. 日本文壇에서 많은 찬사를 받으면서, 한편 등장인물의 모델로부터 告訴당하기도 하고 右翼으로부터 협박당하기도 했습니다. 李良枝 以前의 在日作家의 關心事는 民族的 自我의 發見이었다면, 李良枝·柳美理등은 在日韓國人文學의 命題인 「日本文學의 거부」에서의 脫皮였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李良枝는 在日韓國人의 兩面性을 인정하는데서 自身의 歸屬点을 찾았던데 비하여, 柳美理는 더 나아가서 祖國이나 民族은 문제의 對象이 아니었습니다. 柳美理의 작품세계는 崩壞된 家族關係인 것입니다. 第百十六回 芥川賞을 받은 『家族씨네마』(1996)의 내용은 이미 家族이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家族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서, 소란스러운 여러 장면을 엮어 나갑니다. 난폭하고 獨善的인 아버지, 年下의 남자와 사귀며 의지할 수 없는 남편으로부터 도망친 sex와 돈에 미친 어머니, 精神年齡이 낮은 남동생, 포르노俳優인 女동생,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몇 번씩이나 자살 미수한 主人公이 등장합니다. 主人公은 타인의 不幸을 보고 위안 받는 성향의 人物이며, 얼굴에 추한 종양이 있는 여자 친구나 知的으로 問題가 있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별 볼일 없는 中年의 性的異常者를 만나면 육체관계에 빠져버립니다.

『家族씨네마』의 問題点은 戰後 日本의 傳統的인 價値觀의 崩壞와 그에 따른 家族의 分裂化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所謂 「在日韓國人文學」의 色彩에서 脫皮하고, 그 問題意識 또한 脫民族的, 脫在日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点때문에 柳美理는 병든 日本社會를 素

材로 삼았다고 해서, 右翼으로부터 脅迫받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日本社會의 家族關係의 崩壞뿐만 아니라, 바로 柳美理 家庭의 崩壞도 背景인 것입니다. 卽, 家族이 崩壞되는 마당에 民族意識이 없고, 따라서 歸屬意識이 희박해지고, 白紙에서 小說을 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는 한국인의 Identity문제는 부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同世代의 在日韓國人作家 鷺澤萌(사기사와 메구미)은 혈연관계에서 본다면 柳美理보다 훨씬 日本人에 가깝지만 (祖母만 韓國人), 그녀는 서울의 延世大學校語學堂에서 韓國語를 배우고, 일본에 돌아와서도 韓國語의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柳美理에게도 같이 배우자고 권유했지만, 柳美理는 약간의 꺼림칙함을 느끼면서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柳美理는

> 「純粹한 韓國人이면서 韓日架橋役割이나 兩國의 相互理解에 寄與하지 않는 自身에 비하여 벚꽃도 개나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自由로운 마음으로 鷺澤萌는 한 몸에 큰 역할을 맡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柳美理와 鷺澤萌의 韓國人으로서의 identity를 追求하는 자세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즉 日常生活에서 韓國人으로서의 어려움이나 家族問題로 인하여 否定的인 視角을 갖게 된 柳美理는 韓國人으로서의 identity를 追求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20歲까지 韓國人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사실조차 몰랐던 鷺澤萌쪽이 보다 自由로운 마음으로 韓國을 대하려고 하고 있는 事實을 感知하게 됩니다. 즉 鷺澤萌은 柳美理가 겪었던 在日韓國人家庭의 不幸·醜惡한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벚꽃에 象徵되는 日本도, 개나리에 象徵되는 韓國도 사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鷺澤萌는 半年間의 留學記, 『ケナリも花, サクラも花』(1994)를 썼으며, 18歲때 『川べりの道』(1987)로 文學界新人賞을 受賞하여 文壇에 데뷔했고, 『驅ける少年』(1992)으로 泉鏡花賞을 受賞했습니다.

이 밖에도 詩分野에서 金時鐘, 宗秋月등이 活躍中이고, 小說分野에서는 金在南, 趙南斗, 鄭承博, 高史明등의 作品이 있으며, 최근에는 梁石日의 作品이 注目받고 있습니다. 번역분야에서는 安宇植이, 또 시인이며 수필가인 朴京美가 여러 편의 번역도 출판하였고, 池成子의 伽倻琴 연구소의 일도 도우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 백